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11개 시·도 수산관계자 의견 수렴

어촌·어항발전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를 위한 시·도 통합 공청회가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7일 인천광역시, 10일 경기도, 11일 충청남도, 12일 전라북도, 13일 전라남도, 14일 경상남도, 17일 부산광역시, 18일 울산광역시, 20일 경상북도, 21일 강원도에서 열렸다.

협회는 지난 10월 8일 통합 공청회를 개최한 후, 11월 28일에는 용역의 중간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시·



도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개발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해양수산부 용역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청회에서는 어촌·어항개발의 비전 및 정책방향과 시·도(시군구)별 어촌어항개발 규모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편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 규정에 따라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혁신워크숍 및 혁신BP경진대회로 성과 창출 어촌어항어장 발전 워크숍 개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에서 “혁신워크숍 및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배평암 회장 이하 협회 본부 및 선박 직원 57명 전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협회의 미션 및 비전과 연계된 혁신목표의 가시적인 성과달성을 위하여 변화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우수사례에 대한 성과확산 등 혁신 활동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혁신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박경귀 한국정책평가 연구원장의 ‘변화와 혁신의 성공전략과 리더의 역할’에 관한 특강이 있었으며, 이



후 배평암 회장의 혁신 마인드에 관한 교육이 이어졌다.

혁신 COP(Communities of Practice) 액션러닝 시간에는 △성과관리 또는 혁신 활동관리 개선방안 △고객모니터링 또는 바다여행 활성화 방안 △수거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방안 △효율적인 수거장비 개발 방안 △안전점검기술 품질개선방안 △조

사연구업무 품질개선방안과 COP별로 자율과제가 주어져 문제해결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COP별 혁신변화관리 및 팀리더십 공동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조직혁신에 대한 열린 토론과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이튿날에는 ‘혁신 BP경진대회’를 가졌다. 아울러 ‘혁신아이디어제안’ 우수 사례 발표자 혁신지식왕 선정 및 혁신브랜드네임, 혁신슬로건에 대한 발표와 시상도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KFPA혁신운동 선포, 청렴사직서약식, 혁신실천결의문 채택의 순서를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보령시 침체어망 인양사업 준공

지속적인 어업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어업 가능해져

한 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9월 14일 착수, 추진된 2007년도 보령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지난 11월 19일 준공했다.

총사업비 5억9천만원이 소요된 이 사업에서 협회는 전체 정화면적 2,400ha 대상 수역 계획물량 333톤 대비 103%를 초과한 344.31톤을 수거하는 실적을 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 및 산란장 등에 수년간의 어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침체된 폐어망의 수거를 통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지속적인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어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지역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황죽도, 화사도 주변 해역이며 사업공정은 침체어망 인양작업, 침체어망 해상운반, 침체어망 육상하역 순이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망 및 통발시설 등의 어업행위 중 기상악화나 기타요인으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침체어망을 갈쿠리 등의 인양틀을 이용하여 작업선으로 인양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대선에 적재하였으며, 이후 예선을 이용하여 대천항까지 운반한 뒤, 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하역하는 순이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는 해양보



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협회 어항관리서비스 혁신사례 발표

제8차 혁신현장 이어 달리기 행사에서

지 난 12월 6일 한국어촌어항협회는 포항 등대박물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제8차 혁신현장이 어달리기 행사에서 '고객지향적인 어항관리서비스 혁신사례'를 발표하였다.

협회는 정부위탁업무로 수행중인 어항청소

선 운영 및 어항시설안전점검 서비스의 혁신을 위하여 지난 5월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후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해 △웹기반 통합 DB



의 제공으로 다양한 고객의 이용확대 △실시간 DB정보제공 및 온라인화로 서비스 신속성 개선 △고객 모니터링 및 고객 만족도 조사로 제공정보의 신뢰성 제고 △업무전산화로 관리업무 과부하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실시, 고객 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어항관리를 실천해왔다.

발표내용은 협회 워크숍 '혁신우수사례(BP)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고객위주의 어항안전관리 서비스 개선'과 '어항정화관리업무프로세스 효율화'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은 월간 「어촌어항어장 소식」, 주간 「어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발표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http://www.fipa.or.kr/>)에서 다운 가능하다.